

품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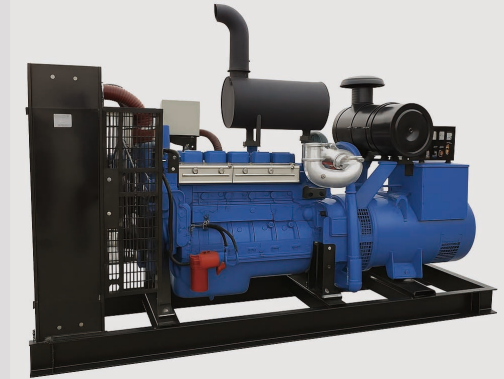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발전세트

HS code

8502.12

관세율(%)

MFN	VK FTA	AK FTA	RCEP
10	0	0	0



▶ 해당 품목의 '25년 3월 對베 수출금액은 전년도 동일 분기 대비 1,612.7% 상승하며 약 193만 달러를 기록함

한국의 연도별 對베 수출동향(HS code 8502.12)

(단위 : 천 불, %)

연도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2020	4,895	13.3
2021	3,306	-32.5
2022	8,416	154.6
2023	7,255	-13.8
2024	3,715	-48.8

선정 사유

2024.3	113	
2025.3	1,931	1,612.7

▶ 해당 품목은 발전기(electric generator)와 여러 가지 원동기(prime mover)가 결합된 발전세트 중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 주로 중소형 공장, 호텔·리조트, 대형 상업 시설 등 상업용·산업용에서 주로 사용되는 75 ~ 375kVA 출력 구간용 제품임

▶ 베트남은 산업화와 인구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전력 부족 문제가 자주 발생하기에 발전기 등 정전 대비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동 품목을 1분기 수출증가 품목으로 선정함

우리나라 對베
수출동향

(HS 8502.12)

- ▶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발전세트(HS 8502.12-0000)의 '25년 3월 對베 수출금액은 193만 달러로 전년도 동일 분기 대비 약 1,612.7%가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한국의 연도별 對베 수출동향(HS code 8502.12 세부품목)

(단위 : 천 불, %)

구분	HSK	품목명	수출금액		
			2023년	2024년	2025년 1분기
1	8502.12-1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7,255	3,715	1,931
			2023년 1분기	2024년 1분기	2025년 1분기
			2,316	113	1,931

수출금액 및
FTA 활용현황

(HS 850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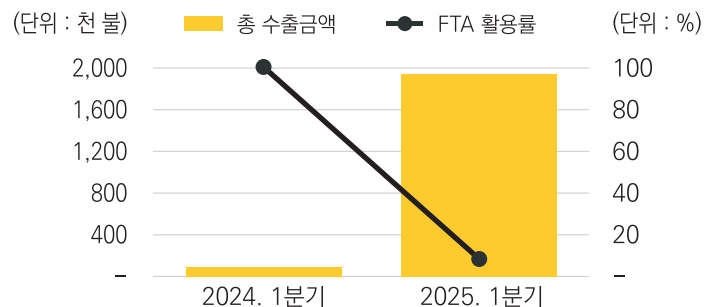
- ▶ HS 8502.12(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발전세트)의 對베 수출금액은 증가하였으나 FTA 활용률은 감소함

- FTA 활용률 '24년 1분기 100.0%, '25년 1분기 9.3%로 나타남
- 해당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PSR)은 한-베트남 FTA와 RCEP은 CTH or RVC 40%, 한-아세안 FTA는 WO or CTH or RVC 40%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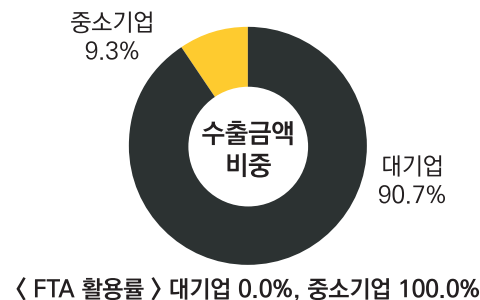
- ▶ '25년 1분기 기준 HS 8502.12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은 대기업 90.7%, 중소기업 9.3%임

- FTA 활용률은 대기업 0.0%, 중소기업 100.0% 임

[HS 8502.12 對베 수출금액 및 FTA 활용률(2024~2025)]



[HS 8502.12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2025년 1분기)]



베트남 수입 동향

- ▶ '24년 수입 금액 기준 베트남의 HS 8502.12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한국, 싱가포르, 일본, 네덜란드, 영국 등의 순으로 나타남
- 3대 수입국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46.8%), 한국(12.2%), 싱가포르(9.3%) 순이며,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과반을 넘김

특이사항

- ▶ '24년 총인구 1억 111만명으로 집계된 베트남은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공장, 기업, 가정을 포함한 전 분야에서 전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베트남 정부는 '30년까지 전력 소비가 연평균 10%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국가 중 하나임
- ▶ 하지만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전력 생산 부족과 노후한 송전망, 용량 한계 등으로 인하여 전력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잦은 정전이 발생하고 있음
- ▶ 베트남 정부는 고질적인 전력난 해소를 위해 5년 주기의 전력개발종합계획(PDP)*을 통해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전원별 설비 용량 결정 및 관련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전력 인프라 구축에는 장기간이 소요됨
* 제8차 국가전력개발계획(PDP : Power Development Plan)은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경제 기반을 구축과 미래 지향적인 전력 체계를 조성을 목표로 하며, 탄소 집약적인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환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음
'24년 4월 15일 발표된 개정안을 통해 전국적인 전력 수요 및 설비 용량을 상향 조정하고, 신재생 에너지 설비 비중을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 ▶ 이에 따라 베트남 내 생산시설을 운영 중인 기업들은 정전 사태에 대비해 재생에너지 설비나 발전세트 등 비상 전력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관련 제품의 수입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시사점

- ▶ 동 선정품목은 베트남측 MFN 10%, 한-베/한-아세안 FTA 및 RCEP 특혜관세율 0%로 최대 10%의 FTA 특혜관세 활용 혜택이 있는 품목임
- ▶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고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글로벌 경계가 높아지면서 베트남은 '차이나+1(China Plus One)*' 전략의 핵심 대안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세계 제조업의 중심축으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음
* China Plus One :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중국 외 국가로 생산기지를 분산하는 전략
- '25년 3월, 보잉·애플 등 美 글로벌 기업 60여 개사가 미국-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USABC)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해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확대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 같은 움직임은 향후 공장 신·증설 수요와 함께 베트남 내 전력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 하지만 베트남 내 전력 공급망의 불안정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로, 발전세트(HS 8502.12)의 수요는 중소형 제조공장, 산업단지, 상업시설 등 다양한 산업군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동 품목의 수출 확대에 있어 주요 수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음
- ▶ 우리나라는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RCEP 등 복수의 FTA를 통해 베트남 수출 시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발전세트 수출 확대를 위해 FTA 활용 전략을 강화하고, 현지 시장 맞춤형 마케팅 및 사후 관리 서비스 강화 등 종합적인 수출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